

더 나은 삶을 위하여... 18세 고교생도 118세 할머니도 한표

광주·전남 투표소 1229곳... 새벽부터 출선 유권자들 장애인·고령자·코로나 확진자까지 무사히 투표 마쳐

선택의 날인 9일, 광주·전남 투표소 1229곳에는 내 삶을 나아지게 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투표시작 전인 이른 새벽부터 투표장 앞은 유권자들로 북적거렸고, 생애 첫 투표에 나선 고교생부터 광주지역 최고령 투표자까지 각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 선택을 끝마쳤다.

◇이른 새벽 투표장 찾은 시민들=장정섭(73)씨 9일 오전 7시께 광주시 북구 지산2동 제1투표소를 찾아가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장씨는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하나 고민하다 사전투표 기간을 넘겼고, 이날 이른 시간 투표소를 찾았다고 했다. 장씨는 "딱딱까지 어느 후보를 지지해야 할지 고민이 됐다. 내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면 좋겠지만, 어느 후보가 되면 지간에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광주시 서구 치평동 제3투표소를 찾은 박정운(46)씨 부부도 일찌감치 투표를 마쳤다. 박씨는 "누가 되더라도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령 투표자도 한 표=광주시 북구 문흥동에 사는 박명순(118)할머니는 아들 부부의 도움을 받아 투표장을 마쳤다. 박 할머니는 투표를 마치고 "마음이 좋다"는 소감을 밝히며 "좋은 대통령이 당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903년 8월 생인 박 할머니는 올해 118살로 광주 최고령 유권자다. 박 할머니는 한 번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약 20여 년 전에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 위해 광주로 이사를 온 박 할머니는 6·25전쟁 중에 치러진 제2대 대통령 선거와 처음 광주에서 투표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박 할머니는 "최근 노인학교에서 노래수업을 수강하며 재미나게 지내고 있다"면서 "다음 선거에도 소중한 투표권을 꼭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설레는 생애 첫 투표=올해 첫 투표권을 가지게 된 이들도 투표장을 찾았다. 부모님과 함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제4투표소를 찾은 고교생 김모(18)군은 "학생이다 보니 모든 후보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피지는 못했지만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첫 투표이다 보니 떨리기도 했지만 마치고 나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군은 투표 '인증샷'도 빼놓지 않았다.

올해 대학 신입생이라는 김태형(19)씨는 "투표까지 하게 되니 진짜 어른이 된 기분이다. 학교에 나간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동기들이 취업 걱정을 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취업 고민을 덜하게 되는 나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투표보조원 도움 받아 투표한 발달장애인들=지난 2020년 21대 총선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 지침이 삭제되면서 투표 보조인을 동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이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지원 임시조치 신청권'에 대해 조정 성립을 결정하면서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게된 발달장애인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정성주 광주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장애인들은 대선을 앞두고 바뀐 선거사무지침을 환영했다. 덕분에 발달장애인들이 투표보조를 받아 투표를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그러나 "선거사무 지침이 바뀌었지만, 앞선 사전투표장에서 불편을 호소한 장애인들이 많았다"며 "투표보조인 허용 여부를 투표장관리 마다 판단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도 많았고, 2층에 투표소를 설치해 장애인들의 투표를 어렵게 하고 있는 투표소들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거동 불편한 노인들, 선관위 차량으로 투표장 행=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투표 편의 지원 차량을 동원, 마을 10여 곳을 돌며 주민들을 투표장으로 실어 날렸다. 선관위는 교통편이 불편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전 광주 북구 문흥1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118세의 박명순님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수송 차량을 운영했다.

시골 마을은 대중 교통편인 버스가 운행되지만 시간대를 맞추기 쉽지 않고 귀가하려면 다시 다른 면 소재지까지 갔다가 다른 버스를 또다시 갈아타야 하는 등 투표소로 가는 길이 험난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투표 편의 차량 요원은 혹시 투표장에 가지 못한 어르신들이 있을까 염려해, 일일이 현관문을 두드려 투표 차량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선관위 수송 버스에 올라탄 노인 유권자들은 오랜만에 만난 이웃 마을 주민들의 안부를 묻고, 선거에 얽힌 이야기거리를 하나씩 풀어냈다.

◇섬 주민들, 배 타고 투표장으로=신안군 섬 마을 주민들은 어선과 도선 등을 타고 큰 섬으로 나와 귀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이날 신안군 압해읍 효지도 주민들은 신안군이 운영하는 1t급 도선을 타고 뱃길로 5분 거리의 북룡 나룻가선착장으로 나왔다. 효지도 한 주민은 "투표소로 가는 길이 불편하지만, 투표하기 위해 일찍 섬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지도 주민 30여 명도 압해읍으로 나와 투표를 마쳤다.

흑산면 가거도와 상·중대도 주민들도 어선을 타고 화태도로 이동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투표=코로나19 확진자인

이모(여·53)씨도 이날 광산구 소촌동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에서 투표를 마쳤다. 이씨는 선관위로부터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 투표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날 6시 20분께 투표소를 찾았다. 이씨는 투표보조인에게 선관위에서 보내 온 문자메시지와 신분증을 보여준 뒤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를 마쳤다. 이씨는 "앞서 실시된 사전투표와는 달리 확진자도 직접 기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을 수 있어, 안심이 된다"며 "확진자이지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0대 대선 투표율 77.1%... 19대 보다 0.1%포인트 낮아

광주 투표율 81.5% 전국 최고... 전남 81.1%·전북 80.6% 지난 대선보다 광주는 소폭 하락, 전남·전북은 높아져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최종투표율이 77.1%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투표율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공식종료 시각인 오후 7시30분 기준 전국 1만4464개 투표소의 투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선거인 수 4419만7692명 가운데 3407만1400명이 투표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 4~5일 1632만3602명이 참여한 사전투표를 비롯해 재외국민·선상·거소투표 집계도 반영한 결과다.

선관위는 애초 사전투표율이 역대 선거보다 높아 이번 대선 최종 투표율이 2017년 19대 대선(77.2%)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국 0.1%포인트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이 예상은 빗나갔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36.93%를 기록하면서 최종 투표율이 19대 대선을 웃도는 것은 물론 80%의 벽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모두 미치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 전북지역 투표율이 각

각 1, 2, 3위를 기록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9일 투표 공식종료 시각인 오후 7시 30분 기준 투표율이 광주 81.5%, 전남 81.1%, 전북 80.6%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으로 인식되는 호남지역이 최상위를 기록했다. 이는 민주당 텃밭인 호남표심의 결집으로 해석된다.

광주는 선거인 120만9206명 중 98만5512명이, 전남은 158만1278명 중 128만1852명이 투표한 것으로 추산됐다. 전북은 153만3125명 중 123만5322명이 투표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광주 지역 자치구 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동구 81.5%, 서구 81.7%, 남구 82.4%, 북구 81.4%, 광

산구 81.0%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목포 78.9% ▲여수 79.9% ▲순천 81.8% ▲나주 81.8% ▲광양 79.7% ▲담양 83.1% ▲장성 82.3% ▲곡성 82.4% ▲구례 84.0% ▲고흥 82.2% ▲보성 81.8% ▲화순 81.9% ▲장흥 82.7% ▲강진 82.5% ▲완도 82.5% ▲해남 81.2% ▲진도 81.1% ▲영암 80.3% ▲무안 82.1% ▲영광 80.2% ▲함평 81.9% ▲신안 83.1%로 집계됐다.

광주 투표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남이 두

번째, 전북이 세 번째였다.

광주·전남·전북 투표율은 전국 평균 77.1%를 웃돈다.

지난 19대 대선(광주 82.0%·전남 78.8%·전북 79%)과 비교해 광주는 다소 낮아졌고, 전남과 전북은 높아졌다.

지난 4~5일 사전투표에서도 광주는 48.27%로 전국에서 세 번째를 기록했고, 전북은 48.6%로 두 번째를, 전남은 51.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임야 3천평이상 삽니다
지분환영. 010-6837-4700

금매·교환
하실분. 010-3605-5000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읍 금성리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0여년생 및 7중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 2 전원 주택용 부지와 사재된 조경수 200여년생 8중 1천5백주 포함**
순창, 금과, 방죽리 담양 경계 산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0여년생 및 7중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중)**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흥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1,276평) 매 ㎡ 9만원
- 4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용달생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자 적합 매 ㎡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송다수자생 생약재매 캠핑장, 휴양지
능가주택 가능 매 ㎡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홈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영공인중개사 대표부 010-3454-2389

대지매매

광주 상무지구 치평동 884-6

2,816㎡, 852평

85억

010-6432-507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없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취득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인고사 또는 관리인 등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인고사 기간 내 신고가 없으면 시정요청으로 관공무원의 임의로 개장할 수 있습니다.

- 분묘개장지: 전남 강진군 삼천면 영동리 산 113
- 분묘의 개수: 27기
- 개장사유: -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의 처리
- 개장방법: - 토지의 효용의 이용 및 재산권 행사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공무원에 의거 임의개장
- 인정사유: 전남 강진군 삼천면 삼천리 178-54 (제향장지연고분묘)
- 인정기간: 공고 후 10일
- 공고기간: 2022년 1월 27일 ~ 2022년 4월 26일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 신고 및 문의처: - 공고인 이종선 (신고처업무담당) 강진토발당 (010-3130-1740) 전남 강진군 삼천면 중앙로 130-1 가림, 사신학인 등
- 신고사유: 개장 후 4개월 이내 관공무원에 의뢰한 분묘와 개장 중 후기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일 기준으로 2022년 3월 10일 공고인 이종선

분할합병공고 (재판사 이의 및 무연분묘)

주식회사 가보 (이하 '가보' 및 '주원세종중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을"의 전기공사사업 영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문을 "갑"과 분할합병하고 "을"의 분할된 부문의 권리와 의무를 "갑"이 승계하고 양 회사는 존속하며 상법 제530조의 9 제3항에 의거하여 출자계산 이의의 제후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다음 날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2년 3월 10일

"갑" 주식회사 가보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송원로 28, 3층(대산빌딩)
대표이사 김진희
"을" 바인에너지 주식회사
대전광역시 서구 원평동로 24번길 43, 201호 (원평동)
대표이사 정희자

산행안내

3월13일(일)

▲광주서산악회 3월13일(일) 원주·소금산·간현봉·산행&출발관리전도길·트레킹 *업주채육권 05:00, 동아병원05:05, 롯데백점05:10, 광주역05:15, 문예후문05:25, 비엔누자점05:30 *다들카메라 광주 서산악회 ☎ 010 7794 6920

先州日報

지국안내

북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북	433-1503
· 우 산	433-1503
동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중 장	222-8171
남구	
· 남 부	673-6836
· 백 은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화	675-6605
· 신 월	671-7276
서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윤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천 단	973-2900
· 최 남	955-0451
· 광 산	944-0444